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14일 이후 '확진자 0명'

추진단, 접종대상자 접종 후 7주차 효과 분석

75세 이상 접종자 중 확진자, 14일 이전 확진

1분기 대상자 14일후 화이자 100%·AZ 90.4%

"관찰 기간 매우 짧아...이후 효과 달라질수도"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 14일 이후 확진 여부를 살펴본 결과 확진자가 아무도 없었다. 백신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및 화이자 백신 모두 100%로 나타났다.

지난 2월26일부터 접종한 76만여명의 접종 14일 이후 백신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0.4%, 화이자 백신 100%다.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들의 접종 후 7주차 효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75세 이상, 접종 14일 이후 AZ·화

이자 백신 모두 100% 효과

추진단은 우선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 389만6634명 중 접종 전 확진된 6902명을 제외한 388만9732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지난 14일까지 1차 접종을 한 접종자는 41만3570명, 미접종자는 347만6162명이다.

백신 접종 시작일부터 4월14일까지 75세 이상 접종자 중 확진자는 6명이다. 접종자 10만명당 발생률은 1.5명이다.

백신 종류별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확진자는 1명,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확진자는 6명이다. 이를

각각 10만명으로 환산하면 각각 0.6명, 2.0명이다. 이들은 모두 1회 접종 14일 이내에 확진됐다.

75세 이상 접종자 모두 두 백신 접종 14일 이후에 확진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모두 백신 효과는 100%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 중 미접종자 347만6162명 중 확진자는 550명이다. 미접종자 10만명당 15.8명이 확진된 꼴이다.

다만,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아직 관찰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관찰 기간을 보정하고, 이후에 관찰 기간이 늘어나면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주간 단위로 분석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1분기 접종 대상자, 14일 이후 화이자 효과 100%...AZ는 90.4%

추진단이 1분기 접종 대상자 86만8505명을 대상으로 접종 후 7주차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90.4%, 화이자 백신은 100%로 확인됐다.

분석 대상은 1분기 예방접종 대상자 87만1283명 중 접종 전에 확진된 2778명을 제외한 86만8505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14일까지 1회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76만6103명,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10만2402명이다.

이들은 지난 2월26일 예방접종을 시작한 요양병원·시설 65세 미만 환자·입소자·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이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2월26일 이후 현재까지 접종자 중 확진자는 105명으로, 접종자 10만명당 발생률은 13.7명이다.

백신 종류별 확진자 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1명, 화이자 백신 4명이다. 접종자 10만명당 접종률은 각각 14.3명, 6.6명이다. 이 중 1회 접종 후 14일 이내에 확진된 접종자는 45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에서 각각 41명,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회 접종 후 경과 기관을 고려해 아



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접종자 중 확진자는 60명으로, 10만명당 8.9명이 확진됐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확진자는 없었다.

이로써 1분기 접종 대상자가 접종 후 14일 이후의 백신 효과를 분석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0.4%, 화이자 백신 100%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1분기 접종 대상자 중 미접종자 10만2402명 중에서는 93명이

확진됐다. 미접종자 10만명당 발생률은 90.8명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분석에 활용된 접종 대상자는 예약, 취소 상황에 따라 일별 숫자 변동이 있어 4월15일 0시 기준 추출된 집단을 고정해 분석했다"며 "향후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추적 관리 기간을 연장해 효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9일 오후 전남도청 승강기 앞을 점거하고 특별교통수단 지역차별 철폐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곡성서 공사 현장 관계자, 굴삭기에 치여 숨져

전남 곡성의 한 공사 현장의 관계자가 굴삭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곡성경찰서는 19일 공사 현장 관계자를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운전자 A(43)씨

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56분께 곡성군 오곡면 전선 매립 작업을 하던 중에 공사현장 관계자 B(71)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선 지중화 공사를 지켜보고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초등 2곳·중학교 1곳 4명 확진...전수검사

가족 통해 감염 추정...온라인 수업 전환 여부 검토



19일 오전 광주 광산구의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임시폐쇄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교문에 걸려 있다.

광주 지역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에서 학생 4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 각급 학교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선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도 초등학교 학생 2명과 중학교 학생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오전 10시부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과 교직원 800여

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이날 오후 늦게 나온 결과에 따라 시교육청은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이날 오후 광주의 중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은 등교를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은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검사는 하지 않고 밀접접촉자를 파악해 검사를 통보하고 있

다.

지난 17일에는 광주 지역 또다른 초등학교 학생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18일 해당 초등학교에 임시선별 진료소를 설치,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1400여명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 이날 하루 해당 학교에 대한 원격 수업을 결정했다.

이들 초등학교 3명과 중학교 1명의 감염 경로는 가짜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 이날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벌인다. 학생 등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위해 교육 전문직원으로 이뤄진 학교 방역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방역점검 기간 학교 방역모니터링단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 교육활동 때 관련지침 준수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최희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